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남북교류협력 3.0 시대 주도한다. - 통합신공항 및 영일만항을 남북교류협력 중심거점으로 조성 -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하반기 남북교류 3.0시대 실천계획 내놓기로 - 남북교류협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찾고 비즈니스 모델 착실히 만들 것	미래전략기획단	
② 2021년 경북, '물심양면(物心兩面)' 청년정책 펼친다 - 경북형 청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경북 청년정책추진단(TF)』 운영 - 『청년에(愛)꿈 수당』 시행으로 일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단계별 지원	청년정책관실	
③ 경북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시군과 머리 맞댄다. - 23개 시군 민생경제 담당과장 참석,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등 분야별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일자리경제 노동과	
④ 경북도, 언택트 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청년채용 지원 한다 - 2021년 신규청년 1인당 매월 200만원씩 10개월 도내 199명 지원	중소벤처기업과	
⑤ 경북관광두레, 명품 '전통주' 로 관광상품 개발 박차 - 2021 「경북의 술과 음식」 미식여행 첫 단추를 위한 3시간 MOU 체결 - 경북도, 술문화 콘텐츠 관광사업 발굴 추진	관광정책과	
⑥ 2021년 재산세주민세 확~ 달라집니다.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율 인하 -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세정담당관	
⑦ 경북도, 농업인 정보화 발전 유공자 도지사 표창 - 농가경영기록 확산, 생산자 패널조사, 정보화농업인 유공 등 농업인 20명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경북도, 남북교류협력 3.0 시대 주도한다.

- 통합신공항 및 영일만항을 남북교류협력 중심거점으로 조성 -
-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수렴 후 하반기 남북교류 3.0시대 실천계획 내놓기로 -
- 남북교류협력에서 새로운 성장동력 찾고 비즈니스 모델 착실히 만들 것 -

경상북도는 14일 화상회의를 통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美행정부 교체를 앞두고 북한이 남북간 합의이행을 촉구하는 등 관계 변화 가능성에 대응해 남북교류협력 3.0시대를 본격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2018년 남북정상회담을 기점으로 교류협력 전담조직을 강화하고 TF팀을 운영하며 사업을 발굴해 왔다. 2019년에는 ‘북한소재 목판공동조사 연구 사업’ 이 통일부의 지자체 중점 사업에 선정되는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준비했으나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경북도는 국제정세의 변화로 올해 남북관계가 변곡점을 맞고 새 정부가 들어서는 2022년부터 남북교류협력 3.0 시대가 열릴 것으로 내다보고 다시 교류협력 준비에 나섰다.

이날 화상회의 플랫폼(zoom)을 통해 개최된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남북교류협력의 분명한 의지를 밝히고 사업 아이디어 도출 등 위원회에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이 지사가 2021년 연구중심 행정체제로의 대전환을 표방하고 있어 향후 남북교류협력에도 민간부분의 역할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민석 道 미래전략기획단장은 「2021년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추진계

획 보고」를 통해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남북교류협력 중심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금년부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와 23개 시군을 비롯해 국제기구, 중앙정부, 타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전방위로 협력하고, 민간단체, 대학, 기업 등의 역할과 노력을 충실히 뒷받침하겠다” 고 말했다.

아울러 북측의 협력의지를 확인할 수 있고 도에 장기적인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기금은 2013년부터 시작해 2025년까지 1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지금까지 58억원을 적립했다.

도는 남북교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교류협력 정책의제 발굴 연구용역과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는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 3.0시대 추진 로드맵과 실천계획을 내용을 계획이다.

참석한 남북교류협력위원들은 지방정부 차원의 남북한 교류사업의 필요성을 한목소리로 강조했다. 새롭게 설정될 북미관계와 남북관계에 유동적으로 대처하고 대북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다수 나왔다.

회의를 주재한 강성조 행정부지사는 “북한이 개방에 나설 때 남북관계 진전의 주도권을 경상북도가 확보하기 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고 강조하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이상의 새로운 상상력과 지혜로 남북한의 새로운 동반성장 동력을 찾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자.” 고 위원들을 독려했다.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영상회의 개최

□ 개 요

- 일 시 : 2021. 1. 14(목) 14:00 ~ 16:00
- 장 소 : 영상회의(zoom 활용)
- 참석인원 : 20명 정도
 - (경북도) 도지사, 행정부지사, 미래전략기획단장, 팀장 등 5명
 - (위원회) 민간위원 15명 ※ 명단 별첨
- 주요내용
 -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방향 보고
 - 참석자 토론 및 정책제안 등

【경상북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 설치 및 근거 : 2008.3.28. 경상북도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9조
- 구 성 : 20명 ※ 위촉직 15, 당연직5 (행정부지사, 문화관광, 농축산, 환경, 자치국장)
- 주요기능 : 남북교류협업사업 및 기금운용 심의·자문 등

□ 시간계획

시 간 계 획		주 요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사회) 사회기획팀장
14:05 ~ 14:10	5'	○ 인사말씀	도 지 사
14:10 ~ 14:25	15'	○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방향 보고 - 추진전략, 세부추진과제, 주요현안 등	미래전략 기획단장
14:25 ~ 15:55	90'	○ 참석자 토론 및 정책제안 - 사업추진방향 의견수렴 - 정책 제안 및 자문	행정부지사 참석위원
15:55 ~ 16:00	5'	○ 마무리 말씀 및 폐회	행정부지사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 14(목)】	담당부서	청년정책관실			
		작성 자	정책관	박 시 균		
			사무관	이배일	주무관	최유복
연락처	054-880-2755					

2021년 경북, ‘물심양면(物心兩面)’ 청년정책 펼친다!

- 경북형 청년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경북 청년정책추진단(T/F)』 운영 -
 - 『청년애(愛)꿈 수당』 시행으로 일하고자 하는 청년에게 단계별 지원 -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 되면서 경상북도의 청년정책 지도도 변화하고 있다. 경상북도는 작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청년들이 경제와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도 청년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만 해도 약 1.9만명의 청년들이 유출되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등 청년들의 지역생활이 순탄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2021년 ‘사중구생(死中求生)’의 각오로 새로운 꿈을 가진 지역의 청년정책들을 발굴하여 ‘물심양면(物心兩面)’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첫째, 청년분야 국비 확보와 청년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경북 청년정책추진단(T/F)』을 새롭게 구성하여 운영한다.

정부는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하면서 2021년에는 270개 과제에 22조 여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에 경북도는 270개 과제를 추진하는 32개 정부부처에 밀착 대응하기 위해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경북 청년정책추진단(T/F)』을 운영한다.

청년정책관실이 총괄하고 일자리, 주거·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분야로 나누어 해당 사업부서들이 참여하는 대규모 태스크포스로 운영된다. 도에서는 『경북 청년정책추진단(T/F)』을 통해 주기적으로 관리하

고 진단함으로써 국가지원 청년정책을 가능한 한 많이 끌어올 계획이다.

둘째, 일하고자 하는 청년과 일하는 청년을 위해 『청년애(愛)꿈 수당』을 새롭게 추진한다.

경상북도 청년정책 슬로건을 딴 『청년애(愛)꿈 수당』은 크게 면접수당, 취업성공 수당, 근속장려 수당으로 구분되어 있다. 면접수당은 면접 1회당 5만원씩 최대 6회까지 중복지원 가능하고, 취업성공 수당은 중소기업에 취업 성공시 1인당 1회에 한해 50만원을 지원해준다. 그리고 근속장려 수당은 중소기업에 1년 이상, 2년 미만 재직 청년에게 월 10만원을 1년간 지원한다.



새롭게 추진되는 『청년애(愛)꿈 수당』은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와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중소기업에 근무하려는 청년들의 ‘취업전 - 취업 확정시 - 초기 근로단계 - 장기정착’ 까지 단계별 지원을 함으로써 청년일자리 복지의 한 축을 이루게 될 것이다.

< 일하고자 하는 청년을 위한 단계별 주요지원 >

취업 전	취업 확정시	초기 근로단계	장기정착 유도
▶면접수당 (5만원씩 최대 6회)	▶취업성공수당 (1회, 50만원)	▶중소기업 정규직 프로젝트 (기업 및 청년 각 300만원) ▶청년근로자 행복카드 지원 (연 100만원)	▶근속장려 수당 (월 10만원)

셋째, 코로나 장기화로 심리적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지역을 이끌 청년인재도 양성하는 『경북 청년발전소』가 운영된다.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실업상태가 장기화되고 외부 활동과 소통 기회가 줄어들면서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을 경험하고 있다. 이에

경북도에서는 『경북 청년발전소』를 운영하여 전문심리상담사를 통해 청년들의 ‘코로나블루’를 해소한다. 아울러, 청년들의 커리어 설정을 도와주고 지역 인재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다양한 경험도 제공한다. 특히 청년이 직접 주도해서 교육 과정을 개설하는 ‘청년 자조(self help)형 교육’은 청년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 역량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 경북 청년발전소 >		
청년자존·정체성 확립	청년참여 및 공동체 활성화	지역 청년인재 양성
청년 심리안정 및 정서지원	청년주도형 교육활동 지원	청년리더 역량 강화

넷째,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여 청년일자리 지원이 대폭 확대되고, 청년창업 지원정책도 현장에 맞게 조정한다.

올해 경북도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공모에서 363억원을 확보하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국비를 확보했다. 여기에 지방비를 포함해 총 801억원을 투입하여 약 4,000여명의 경북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2020년에 3,100여명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지원 규모가 크게 늘어난 셈이다. 특히 비대면·언택트 분야, 디지털 혁신·빅데이터 구축 일자리, 디지털 교역 일자리 등 특화된 일자리를 새롭게 발굴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일자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2019년부터 서울시와 협력하여 추진 중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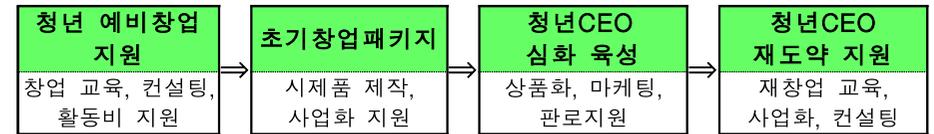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도 올해부터는 서울 청년의 경북 정착을 늘리기 위해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3개월 근속시 3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최대 3차례까지 중복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기 정착을 유도한다. 올해는 총 43명의 서울 청년이 경북에서 활동할 계획이다.



경북의 청년창업 지원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도시청년 시골과견제』와 『커플창업지원제』를 『청년창업 지역정착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한다. 이전과 가장 큰 변화는 창업지원 전에 지역자원조사, 현장캠프 등을 운영해서 지역생활 부적응을 최소화하고 부부(커플)에 대한 우대 강화로 지역 정착률을 높인다는 점이다.

아울러 『경북 청년CEO 재도약 지원사업』도 추진해서 사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재창업 교육, 사업화 자금,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기존의 예비창업지원 사업, 초기창업패키지 사업, 청년 CEO심화 육성 사업과 연계해서 『청년창업 원스톱 지원체제』를 완비한다.

< 청년 창업 원스톱 지원 체제 구축 >



다섯째, 2021년 경북 청년정책은 청년들을 단순한 수혜자가 아니라,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주인공으로 변모시킨다.

지역 청년이 직접 주도해서 청년 유입 활동을 펼치는 활동을 도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작년에 문경 청년들이 주축이 되어 진행한 『달빛탐사대 프로젝트』는 77명의 청년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지역생활을 통해 지역경험을 쌓았고, 이 중 9명은 문경 정착에 성공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땀 흘리고 있다. 올해도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계속될 수 있도록 약 4억 7천만원을 투입해서 일자리 사업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다. 또한 행정안전부와 협력해서 도내 2개 시·군에 청년 주도의 청년 유입 사업을 추가로 펼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지원규모를 늘리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우선,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총 1억 5천 만원을 투입하여 총 15팀에 팀당 최대 1천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청년 공동체를 발굴하면서 청년들이 지역 사회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청년 농부, 청년 기업인, 청년 봉사단 등 다양한 청년단체들이 지역사회에서 마음껏 봉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적 지원도 병행한다.

그리고 경북 청년들의 지역 활동과 사회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경북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원을 대폭 확대하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OPEN)형으로 운영하는 한편, 상주, 영주, 예천, 경산 등 시군에 청년 소통공간을 마련한다. 대학생들의 참여도 독려하기 위해 도내 대학 총학생회장단이 참여하는 소통 체계도 별도로 구축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청년을 빼고 경북의 미래를 논할 수 없다. 청년 중심의 혁신적인 도정으로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들을 끊임 없이 개발하고 시행토록 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신공항과 행정통합에 많은 고민을 담아,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생활의 질을 높이는 청년공항, 청년통합으로 일컬어 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14(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노동과			
		작성자	과장	박성근		
			사무관	임채완	주무관	한상엽
연락처	054-880-2653					

경북도, 코로나19 경제 위기 극복... 시군과 머리 맞댄다.

- 23개 시군 민생경제 담당과장 참석,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 -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원 등 분야별 대책 속도감 있게 추진 -

경상북도는 14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일자리경제실장 주재로 「민생 살리기 시군 경제담당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과 기업경기 둔화 등으로 위기에 직면한 지역경제를 살리고,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피해 민생분야별 지원 대책을 발굴하기 위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현실적인 대안을 담아내고자 마련됐다.

회의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공공일자리 지원 및 설 명절 주요대책 △경북행복페이 통합플랫폼 구축(안) 추진 방향 안내 △시군 현장의견 공유와 건의사항을 전달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도에서는 올해 2,3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지급, 1,200억원 규모의 설 명절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지역방역 일자리사업, 설 맞이 지역사랑 상품권 10% 할인 판매, 삼삼오오 전통시장 장보기, 경북행복페이 통합 플랫폼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시군에서는 지난해 시행되었던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 계속 추진, 공공일자리 창출 분야 예산 증액,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관련 민원 증대에 따른 지급현황 및 주요 안내 사항 수시 공유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나왔다.

배성길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코로나19로 지역민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며 “코로나19 사태가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 예방과 방역에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밝혔다.

<사진별첨>

-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
민생살리기 시군 담당과장 영상회의 개최

■ 회의개요

- 일 시 : 2021. 1. 14.(목) 14:00 ~
- 장 소 : 도 영상회의실(206호) ↔ 시·군 영상회의실
- 참 석
 - (도) 일자리경제실장(주재), 일자리경제노동과장, 중소벤처기업과장, 민생경제과장, 사회적경제과장 * 관련업무 팀장 배석
 - (시·군) 23개 시·군 민생경제 담당과장

■ 주요내용

- ①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중소기업, 공공일자리 지원 및 설 명절 주요 대책
- ② 경북행복페이 통합플랫폼 구축(안) 추진방향 안내
- ③ 시군 건의사항 (소상공인·자영업자·전통시장 분야 등)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4:00 ~ 14:05	5	▶ 인사말씀	일자리경제실장
14:05 ~ 14:35	30	▶ 협조요청사항 전달	
		① 중소기업 분야 대책 (‘5)	중소벤처기업과장
		② 소상공인 등 분야 대책 (‘15)	민생경제과장
		③ 공공일자리 분야 대책 (‘5)	사회적경제과장
14:35 ~ 15:05	30	▶ 시군 건의사항 수렴	담당과장, 참석자
15:05 ~ 15:10	5	▶ 마무리 말씀	일자리경제실장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 14(목)】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실 중소기업과				
		작성 자	과 장	이 강 학			
			사무관	김영길	주무관	박정호	
연 락 처	054-880-2683						

경북도, 언택트 산업분야 중소기업에 청년채용 지원 한다.

- 2021년 신규청년 1인당 매월 200만원씩 10개월, 도내 199명 지원 -

경상북도는 올 한해 언택트(비대면) 산업분야 중소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언택트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본 사업은 언택트(비대면) 산업분야의 중소기업에 청년채용을 지원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며, 경상북도가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공모하여 추진하고 있다.

언택트(비대면) 산업분야는 자율주행차, 로봇,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이며, 언택트(비대면) 산업분야 중소기업이 만39세 이하의 청년을 신규채용하면 1인당 월 2백만원씩 10개월간 지원해준다. 업체당 최대 2명까지 신청가능하며 도내 17개 시군 총 199명을 지원한다.

이번 언택트(비대면) 산업분야 청년일자리지원 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www.jobforu.co.kr)에 게시되며, 신청기간은 2월 26일까지이고, 3월중 평가를 거쳐 지원기업과 청년을 선정할 예정이다.

배성길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실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핵심은 비대면으로, 향후 비대면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이라며, “본 사업을 통하여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언택트산업 육성이란 두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 14(목)】	담당부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문 환			
			팀 장	구자희	주무관	장정현	
연 락 처	054-880-3185						

경북관광두레, 명품 ‘전통주’ 로 관광상품 개발 박차

- 2021 「경북의 술과 음식」 미식여행 첫 단추를 위한 3자간 MOU 체결 -

- 경북도, 술문화 콘텐츠 관광사업 발굴 추진 -

경상북도는 지난 8일 안동의 명인 안동소주(대표 박재서), 예천의 백주도가 영탁막걸리(대표 백구영), 경북관광두레협력센터(센터장 전미경) 간의 ‘2021 경북의 술과 음식 미식여행’ 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체결은 전통주를 통한 상호협력 통합네트워크 구축, 경북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콘텐츠 및 제품개발 지원, 체험관광 연계를 통한 결합 상품개발 및 각종 이벤트·행사 등 협력, 지역사회 연계 공동프로젝트 발굴 및 지역사회 공헌 등을 목적으로 안동·예천지역에서 직접 제조하는 명품브랜드인 명인 안동소주와 백주도가 영탁막걸리와 의 협약으로 경상북도가 술문화 콘텐츠 발굴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과 흐름을 같이 하고 있다.

명인 안동소주는 국가지정 박재서 명인이 만드는 안동소주로 2012년 대한민국 우리 술 품평회 대상 수상, 2013년 샌프란시스코 국제주류 품평회 더블골드 대상, 2018~19년 한국관광공사와 코레일에서 주관한 ‘술로 시작해서 술로 끝나는 국악 와인 열차 술술트레인’을 통해 전통주를 통한 관광활성화의 성공적인 사례로 손꼽힌다.

백주도가 영탁막걸리는 2020년 5월 13일 영탁막걸리를 출시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가운데 2020년 소비자가 뽑은 올해의 브랜드 대상을 비롯하여 지난해 제4회 전국 전통주 평가(20.11.)에서 베스트 전통주로 선정되는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지난해 경북관광두레협력센터는 지역주민 주도의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경북의 술과 음식’을 주제로 코로나19로 변화된 관광 패러다임에 맞는 경북 고유의 특색있는 콘텐츠 개발과 상품화로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다양한 관광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희망을 주기 위해 ‘경북이 건네는 한잔의 위로’라는 주제로 ‘홀홀술술’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홀홀술술은 ‘지난 일을 홀홀 털어버리고 앞으로의 일을 부드러운 바람과 같이 술술 풀어나가자.’는 의미로 경북의 9개 지역 관광두레 참여 주민사업체에서 경북을 대표하는 전통주와 어울리는 안주를 새롭게 개발하여, 여행과 음식이라는 테마로 엮어낸 프로젝트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4차산업 혁명시대에는 문화관광, 교육, 음식 산업이 미래 부(wealth)의 원천이 될 것이라는 예측으로 경북의 우수한 음식문화를 현대적으로 계승하고 술문화 콘텐츠 관광상품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 14(목)】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작성 자	담당관	송 홍 식		
			팀 장	김영미	주무관	정성문
연 락 처	054-880-2225					

2021년 재산세·주민세 확~ 달라집니다.

-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 재산세를 인하 -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경상북도는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특례 신설과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내용을 담은 「지방세법」이 2021년 일부개정 되어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2020. 11. 3.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계획」에 의하여 부동산 공시가격을 연 3%p씩 높여 10~15년에 걸쳐 시세의 90%로 현실화함에 따라 세부담을 완화하고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고자 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 세율을 과표구간별로 0.05%p 인하한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재산세율 적용하여 보면, 과표 구간별로 공시가격 1억원 이하는 최대 3만원, 1억~2.5억원 이하는 3만원~7.5만원, 2.5억원~5억원 이하는 7.5만원~15만원, 5억원~6억원 이하는 15만원~18만원의 재산세 감면이 예상된다.

<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 특례 세율표 >

과표	표준 세율 (공시 6억 초과·다주택자·법인)	특례 세율 (공시 6억 이하)	감면액	감면율
0.6억 이하 (공시 1억)	0.1%	0.05%	~3만원	50%
0.6 ~ 1.5억 이하 (공시 1억~2.5억)	6.0만원+0.6억 초과분의 0.15%	3.0만원+0.6억 초과분의 0.1%	3 ~ 7.5만원	38.5 ~ 50%
1.5 ~ 3억 이하 (공시 2.5억~5억)	19.5만원+1.5억 초과분의 0.25%	12.0만원+1.5억 초과분의 0.2%	7.5 ~ 15만원	26.3 ~ 38.5%
3 ~ 3.6억 이하 (공시 5억~6억)	57.0만원+3.0억 초과분의 0.4%	42.0만원+3.0억 초과분의 0.35%	15 ~ 18만원	22.2 ~ 26.3%
3.6억 초과 (공시 6억)		-	-	

또한, 기존 건축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던 오피스텔에 대한 별도의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이 마련되어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 표준가격 기준액에 오피스텔의 용도별·층별 지수 및 오피스텔의 규모·형태 및 특수설비 유무 등을 고려한 가감산율을 적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여 2022. 1. 1. 기준 시가표준액이 결정·고시되는 오피스텔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개정됐다.

주민세는 복잡한 과세체계를 획기적으로 단순화하고, 납세 횟수 축소와 납기 통일로 납세편의를 위해 사실상 5개로 구성된 현행 세세목을 3개로 대폭 간소화했으며, 주민세 납기를 8월로 통일하고, 재산분 명칭을 ‘사업소분’으로 명확화하고 신고세목으로 변경했다.

따라서, 개인 균등분, 개인사업자 균등분, 법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던 주민세 과세체계가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으로 단순화되고, 매년 7월 사업장 면적에 따라 신고·납부하던 재산분 주민세와 8월에 사업자에게 부과되던 개인사업자·법인 주민세가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며 신고·납부기한도 8월로 통일된다.

< 납세자 중심의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 >

현행			⇒	개정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내		개인분 (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사업소분 (8월)	사업자
	법인	5 ~ 50만원		종업원분		
재산분 (7월)	사업자	연면적 330㎡초과 250원/㎡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김장호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개정된 지방세법은 과세제도 합리화와 납세자 권익보호 등에 중점을 두었으며, 특히, 재산세와 주민세는 과세체계가 크게 변동되어 도민들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 며, “앞으로도 도민들의 납세편의 확대를 위해 지방세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경상북도	보도자료 【21. 1. 14(목)】	담당부서	농업기술원 원예경영연구과				
		작성자	과장	김대현			
			팀장	허창석	담당자	최돈우	
연락처	053-320-0275						

경북도, 농업인 정보화 발전 유공자 도지사 표창

- 농가경영기록 확산, 생산자 패널조사, 정보화농업인 유공 등 농업인 20명 -

경상북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인 정보화 발전에 적극 기여한 경북도내 농업인 20명에게 경상북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수상 부문은 농가경영기록장 우수부문에 김현경 등 5명, 농업 생산자 패널조사 부문 우수자 이윤도 등 5명을 선정해 표창하고, 코로나19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온라인 전진대회와 정보화 교육 등을 통해 경상북도 정보화농업인 발전에 기여한 김미경, 이해선 등 10명에게 표창장을 수여 했다.

농가경영기록장은 개별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과 재무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한 시스템으로 연간 농업인 2,500명에게 배부해 기록하고 있으며 모바일앱으로 연간 1,600여 명이 사용하고 있다.

생산자패널조사는 사과 등 10품목, 350농가를 선정하여 경북농업인의 만족도, 생산비, 기술 활용 등을 조사분석해 농업여건 변화의 대응자료로 활용 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는 생산자패널시스템(panel.gba.go.kr)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가경영기록장으로 작성된 경영자료를 분석하고 사업에 적극 반영해 농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신용습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SNS) 환경에 미리 준비된 정보화농업인들은 장점을 잘 살려 농산물 직거래 판매에 가치를 한 단계 더 높였다.” 며, “앞으로 농업인들의 정보화 능력 향상과 농가소득 안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 라고 전했다.

◆ 수상자 내역

구분	성명	농가 현황
1	김현경	○ 양봉, 오미자 재배 농업인으로 영농일지를 꾸준히 작성
2	김명순	○ 벼, 사과 재배 농업인으로 영농일지를 꾸준히 작성
3	한상협	○ 대추, 복숭아 재배 농업인으로 영농일지를 꾸준히 작성 ○ 농업회계 성적 우수자
4	이성순	○ 야생화, 관상수 재배 농업인으로 영농일지를 꾸준히 작성
5	박순서	○ 한우, 사과를사육·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영농일지를 꾸준히 작성 ○ 농업회계 성적 우수자
6	김영도	○ ‘생산자패널조사분석시스템’의 생산자 패널, 설문조사 참여
7	김동훈	○ ‘생산자패널조사분석시스템’의 생산자 패널, 설문조사 참여
8	전재일	○ ‘생산자패널조사분석시스템’의 생산자 패널, 설문조사 참여
9	김종문	○ ‘생산자패널조사분석시스템’의 생산자 패널, 설문조사 참여
10	이윤도	○ ‘생산자패널조사분석시스템’의 생산자 패널, 설문조사 참여
11	김미경	○ 경북 정보화농업인연합회 발전기여 - 정보화농업인회 활동 : 7년, 수석 부회장
12	이해선	○ 경북 정보화 농업인연합회 발전기여 - 정보화농업인회 활동, 경북정보화농업인연합회 감사
13	김영성	○ 경북 정보화농업인회 대외협력국 및 예천군지회 사무차장 - 정보화 대회 및 행사에 운영위원으로 참여
14	송관섭	○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및 신기술 보급 ○ 경북농업인 정보화 경진대회, 전진대회 수상에 기여
15	권갑숙	○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정보화농업인회 활성화 및 정보화역량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및 신기술 보급
16	권원규	○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정보화농업인회 활성화 및 정보화역량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 기여
17	이동국	○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및 신기술 보급 ○ 정보화농업인회 활성화 및 정보화역량 향상 농가소득증대
18	이지순	○ 지역농업인 단체 활성화 기여 ○ 지역사회 선도농업인 육성 ○ 도시소비자와 농업인 상생
19	도진영	○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및 신기술 보급 ○ 농업정보 콘텐츠 구축을 통한 지역브랜드 활성화에 기여
20	나순석	○ 정보화 교육의 활성화 및 신기술 보급 ○ 성주군 정보화농업인회 운영